

총학 전면수업거부안 상정

오는 14일 비상학생총회 열고 제안할듯 청와대·교육부 진정서 제출 계획

학생회간부에 내리진 중징계위원회로 시작된 2학기 학원자주투쟁은 총학운영위에서 제안한 전면수업거부행위와, 교육부진정서 접수투쟁이 구체화되면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7면)

지난 31일 학원(450)에서 열린 제2차 비상학생대표회의에서 대표자들은 오는 14일 비상학생총회 개최를 결의하고 총회 주관으로 '전면수업거부투쟁'을 상정키로 했다.

이날 안전발의에 나선 최순호총학생회장은 "1학기 투쟁이후 재단의 자정노력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학생회관들에 대한 중징계조치가 내려지고 사법처리협박이 계속되고 있다"며 오는 2일 총학진군식부터 비상학생총회일까지 총파업등 투쟁방향을 대한 단위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후 진행된 학자위원회의 앞으로의 투쟁방향제안에서는 '조정제결의, 재단이사추기직등을 골자 한 요구안 제안'등을 골자로 한 '전면수업거부투쟁'의 결의에 따라 진행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발의됐다.

또한 지난 1차 학생대표회의를 통해 의결된 재단이사회의 재정적 기여를 의무화하는 제도적장치 마련등을 골자로 한 '재단정상화 방안'을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교육부진정서 접수투쟁에 대해 김수정 학자위원장은 "1학기 학원자주투쟁을 진행하는 동안 학내의 주체 여론을 감안 유보해 왔으나 현 재단, 학교당국의 불성실한 태도에 이같은 강경투쟁이 제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총학생회 대표의로 접수시킬 예정인 진정서는 이사들의 금품수수등 재단에 제기되는 우방도 영원한 적대국도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편 1, 2차에 걸친 학생대표회의를 통해 논의된 이후 재단학사투쟁방안들은 앞으로 진행될 단위로론 결과와 비상학생총회 결의에 따라 진행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지난 26일 있었던 '부당징계철폐와 총학에서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 모인 3백여명의 학생들은 '결사항전'을 결의했다.

농과대 학생회 징계철폐 단식농성

농과대 학생회(회장=박준우)는 26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재단이사추기직등에 대한 징계철폐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이다.

성애 들어갔다

이 단식대는 김용민(농경 3), 조원복(농경 2), 박동혁(농경 2) 등 3명으로 해와라 2층로비에서 총학군 진군식이 있는 2일까지 단식을 계속할 예정이다.

경주정각원 방화사건 재발 동일범 소행으로 추측

경주캠퍼스 정각원(원장=최창식·불교학)은 잇따른 방화사건으로 총체적 경비대책을 마련중이다.

지난 7월23일 밤11시30분경 정각원 앞마당에 주차해 있던 승용차 방화에 이어 8월23일 건물 뒷편 보일러실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자, 일련의 방화

사건을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사건수사에 나섰다.

피해정도는 이전보다 경미하여 플라스틱 불통 및 고무호스 등이 전소되는 정도에서 그쳤으며 현재 경찰의 수사는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당국은 잦은 방화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정각원 외부

경비초소 설치와 경비인력 보강을 완료한 상태이고, 경비구역 업체에 의해 화재 감지기를 포함한 전자 경비 시스템을 안착으로 설치중이다.

또한 야간침입시 건물피해 방지 및 방인검거를 위해 가스충등의 경비장비 구입을 추진중이다.

지난 88년 12월의 도서관에 위치해 있던 정각원이 방화로 인해 전소된 이후 92년부터 또다시 연속적으로 방화사건이 발생하자, 학내에는 범인에 대한 갖가지 추측들이 무성할 가운데 경찰의 수사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입학 대상자 확정 복추위 등록금 전액면제요구

93학년도 2학기 재입학 대상자가 특별재입학 대상자 53명, 1학기재입학 대상자 11명 일반재입학 대상자 76명 등 총140명으로 확정됐다.

학교당국은 지난달 24일 중앙복합심사위원회(위원장=송석구·철학)를 열어 특별재입학 대상자 53명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함께 학과과는 지난달 30일 까지 일반재입학 대상자에 대한 신청서를 받고 76명의 대상자를 확정해 오늘(1일)까지 수강신청 및 등록을 받는다.

한편 특별재입학 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문제도 이들에 대한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특별추진위원회(위원장=김기현·컴공73학번)는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제적을 당했으며, 그에따라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고 등록금을 졸업시까지 전액 면제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학교당국은 1학기 재입학자와의 형평성등을 고려해 3학기 등록금 면제를 제안한 바 있다.

한편 복추위측은 지난달 30일 복추, 재입학 대상자에 관한 학교 협조 요청 사항을 통해 스북재대상자는 복추위에서 제출한 전원으로 한다. 스북입시까지 등록금 전액 면제한다(1학기 복추대상자와 추후에 복추할 대상자 포함) 스북제적되지 않았으나 시국사건과 관련해 사법적 제재를 받은자에 대한 등록금 전액면제 스북사행정 전면에 대한 학교당국의 적극적 배려 등을 요구했으니 지난 31일 총장담담을 가졌다.

교수동정

▲목정배(불교학)=오는 10일부터 석달동안 배우 금요일 대한불교교민회의 사무실에서 유망 강사.

▲임기중(국문학)=명·정조의 교묘한 대외 연교를 통해 대외에 관련된 오늘(1일)부터 6개월간 제후.

▲장한기·김홍우(언국영화)=중국 사신제 금성시에서 오는 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사신 기념회와 국제학술 토론회에 참석차 지난 28일 출국.

▲서석호, 이선희(경주캠퍼스 의학)=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83기초의 학술회에서 지난 8월27일, 28일 양일간 참석.

8명 학사경고제적 재발방지책 마련돼야

학원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91년부터 부활·적용된 학사경고 제적제에 따라 본교에서도 지난 1학기 말 제적생이 발생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당국은 지난 91년 개정된 학사경고제에 따라 3학기 연속학사경고자 사용캠퍼스 6명과 경주캠퍼스 2명에 대해 제적조치했다.

이 학사경고제에 따르면 평균평점 15미만, 이수학점12학점 미만인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하며 학사경고 연속3회 또는 통산4회를 받은 92학년도 이후 1학자는 제적처리하게 됐다.

지난 1학기까지 연속2회 학사경고를 받은학생은 38명으로 밝혀져 92학기에 또 다시 제적생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적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학과과의 한 관계자는 "2회연속 학사경고자 38명에 대해 10월중 경고문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해 제적생 발생을 최대한 줄일방질"이라고 밝혔다.

역경원 '불교가사'발행

역경원은 임기중(국어국문학)교수 편지의 '불교가사'(전 5권)을 오는 3일 발행할 예정이다.

일반 가사작품 중 넓은 의미의 불교문학에 속하거나 좁은 의미의 순수한 불교문학에 속하는 일체의 작품을 '불교가사'라 하는데 모두 1백여편으로 원문 작품전체가 수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경준 편집부장은 "학기 이후 우리나라 불교가사를 집대성한 작품"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20일 출판된 '법원주립은 총 1백권의 방대한 법원주립 원전을 줄여 전 5권으로 발행됐다.

보수

분단국가의 비극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산가족의 쓰라린 고통은 더욱 알 수가 없을 것이다. 북쪽에서는 목숨을 걸고 철조망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다. 해가 바뀌고 몇년이 돌아오면 남쪽의 실형자들은 방배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통곡을 한다. 통일특구는 건반국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분단의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들은 왜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한(恨)은 더욱 쌓이게 되고 자존심은 몹시 상하게 된다. 그래서 일본 총독부의 건물을 헐어버리자는 결심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인류의 생존의 역사는 투쟁

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약육강식의 생태계에서 살아 남아야만 하는 적자생존의 법칙도 영원한 적대국도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편 1, 2차에 걸친 학생대표회의를 통해 논의된 이후 재단학사투쟁방안들은 앞으로 진행될 단위로론 결과와 비상학생총회 결의에 따라 진행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자유(自由)

행위는 인간의 모든 밝은 생각을 이롭게 만든다. 이것을 일러 무명(無明)이라고 하였다.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한 어리석음은 탐욕과 증오를 일으키게 한다. 바르지 못한 비틀어진 견해에서 비롯된 어리석음은 인간의 끝없는 비

崔法慧

극의 연속을 부른다. 지구촌의 모든 분쟁의 결과는 인간의 탐욕과 증오의 행위에 의한 과보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러한 자승자박(自勝自縛)의 윤회속에서 무엇이 이 결박을 풀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쓰러린 비극의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인가. 그것은 모든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는 자애와 자비의 가르침 뿐일 것이다.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 즉 해탈(nirvana)이란 우리가 갈구하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속을 여행하며 타고르고 있는 삼투(三透)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한 인간은 항상 자유를 잃고 불안과 공포와 슬픔의 고통속에서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야만 할 것이다.

崔法慧

제35기 수습기자 모집

대학언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에서는 우리시대를 예리한 필봉으로 파헤쳐 나갈 의욕있는 남녀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①모집인원:서울 및 경주캠퍼스 00명
②응시자격:1학년 및 2학년 학생
③모집분야:일반 및 문화·사건기자
④제출서류: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사진 1매(지원은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함)
⑤원서접수:서울 9월24일(금) 오후 4시까지
경주 9월24일(금) 오후 4시까지
⑥시험일자:서울 9월24일(금) 오후 5시
경주 9월24일(금) 오후 5시
⑦시험과목:1차 필기-상식·논술
2차 면접-1차필격자에 한함
⑧원서제출처:본사 총무부
⑨시험장소:학림관 J201(서울캠퍼스)
원호관 A301(경주캠퍼스)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장학금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동대신문사

'93 東國大學校 釋林同門會 臨時總會 및 세미나

佛紀 2537年度 東國大學校 釋林同門會는 第13次 臨時總會 및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開催하게 되었습니다. 會場은 光復로 남산 유스호스텔입니다.

1. 會場: 光復로 남산 유스호스텔
2. 日時: 불기 2537년 9월 5일 16시 ~ 6일
3. 總會 안건: 회칙개정, 관원 선출, 동국학원사내에 관한 건
4. 세미나: 주제: 석림30년, 釋林의 位相과 役割
5. 會員名單 (尊稱省略) 무순

1. 會長: 김기현 (컴공73학번)
2. 副會長: 송석구 (철학)
3. 總務: 김기현 (컴공73학번)
4. 總務: 송석구 (철학)
5. 總務: 김기현 (컴공73학번)
6. 總務: 송석구 (철학)
7. 總務: 김기현 (컴공73학번)
8. 總務: 송석구 (철학)
9. 總務: 김기현 (컴공73학번)
10. 總務: 송석구 (철학)
11. 總務: 김기현 (컴공73학번)
12. 總務: 송석구 (철학)
13. 總務: 김기현 (컴공73학번)
14. 總務: 송석구 (철학)
15. 總務: 김기현 (컴공73학번)
16. 總務: 송석구 (철학)
17. 總務: 김기현 (컴공73학번)
18. 總務: 송석구 (철학)
19. 總務: 김기현 (컴공73학번)
20. 總務: 송석구 (철학)
21. 總務: 김기현 (컴공73학번)
22. 總務: 송석구 (철학)
23. 總務: 김기현 (컴공73학번)
24. 總務: 송석구 (철학)
25. 總務: 김기현 (컴공73학번)
26. 總務: 송석구 (철학)

其他 자세한 會議는 本會 事務局으로 申請 바랍니다.
후원 東國大學校 釋林同門會 會長 李慧聰

◇ 백두대간 종단기 “내가 사는 이땅이 가장 아름다운 곳”

백두대간 종주라는 이야기가 신악부설에서 나돌기 시작한 것은 춘계 훈련동반 이진부터였다. 한 기수 위인 형준형과 현철형 사이에서 말이 오고 가다가 결국 설악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구제되었다. 나는 '백두대간'이라는 엄청난 산행에 마음이 설레어 형들에게 선뜻 같이 갈 뜻을 비추었다. 처음 산악부에 들어왔을 때부터 관심이 있어온 종주였고,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에서 결정한 것이었다. 산지에 나오는 백두대간에 대한 기사를 통해 약간의 알고 있었지만, 확실한 길의 자리잡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춘계훈련동반이 끝나고 준비작업이 하나 둘 시작되면서 조금씩 백두대간의 정리가 마음

나갈 수 있었다. 6월27일. 다섯개 구간 4번의 식량지원 계획이 잡히고, 지리산 종산에서 출발해서 설악산을 지나 진부령까지 가는 도상거리 약 6백90km, 50일간의 긴 종주가 시작될 것이다. 첫날 지리산 법계사 입구에서 야영하고 다음날 아침, 비를 맞으며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다. 방학기간이 장마기간과 맞물려 어쩔 수 없이 비를 맞아야 했지만 종주가 끝날 때까지 비는 지점도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비 덕분에 서늘한 여름을 보낼수는 있었지만 비는 정말 귀찮았다. 처음 10일 동안은 물이 많이 아니었다. 발가락은 곱집이 벗겨졌고, 발바닥은 물집부성이었다.

식량은 2개의 쌀, 1개의 행동식(건빵, 미시거)중에 간식



한 구석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형준형은 산에서 구간 지도와 자료를 찾아와 바쁘고 있었고, 나머지 부원들 중 대간종주에 관심이 있어온 동기들(산악부 15기)과 나는 집안 어른들께 허락을 받으려 바쁘게 시작했다. 대원이 구제되고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될 즈음 형들의 에베레스트(8천848m) 원정대 사고소식이 전해졌다. 준비작업이 다소 흔들린 듯했지만, 분항소를 지키고 발을 새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합숙훈련이 시작되었다.

5월이 후반 지나고 6월로 접어들었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바로 출발하기로 계획이 잡혔는데, 학내 사정으로 27일로 결정되었다. 기말고사로 바꿨지만 나머지 준비작업으로 더욱 바쁜 6월이 되었다. 지도를 통한 구간 분석과 지형문제, 식량문제, 의료문제는 선배님들과 부원들 그리고 학교 관계자분들의 도움으로 착착 진행되었다. 준비작업 중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같이 가기로 했던 대원들이 여러가지 문제로 종주에 합류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원은 형준형과 나, 둘로 최종 결정되었다. 6월 한달동안 이진구부와 주팔산행, 남산에서 의안 산행을 통한 훈련으로 종주기간 중 저하될 체력에 대비했다.

출발 날짜가 가까워지자 선배님들은 준비작업에 따른 비비침을 지켜봐 주시고 구간별 명도 해주시며 종주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었다. 부원들은 식량포장과 지도포장을 도와주며 출발 전까지 모두 하

이 2번 있었다. 처음 며칠은 견딜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식욕이 엄청 늘었다. 그래서 갑자기라도 나오면 감자를 캐먹었고, 산속에서는 더덕도 캐먹었다. 여짜다가 산딸기와 산뽕나무 열매인 오디를 발견하게 되면 반가워서 휴식을 하고 따먹기도 하며 허기를 면했다. 한번은 이를 정도로 밤을 해먹지도 못하고 운행을 한 적도 있었다. 10일정도를 고생하다 지원날이 되면 푸짐하게 먹고 꿀 술을 마셨다.

산행이 힘든 것은 사실이었다. 날씨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짐중후부와 2번의 태풍도 만날 수 있었다. 비가 오는 날, 해라도 뜨면 땀을 몇 마리씩 보는 것은 하루 일과였다. 그렇지만 하루의 산행을 끝마치고 하루종일 온 산들을 돌아볼 때면 아름다운 국토에 넋이 빠져 버렸다. 끝도 없는 넓고, 크고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다. 나 자신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확신이 굳게 마음속에 자리잡았다. 50일동안 이루 소원이 내 투정을 받아 준 산들이 이 종주를 무사히 마치게 해준 것 같다. 언젠가 나처럼 북녘의 백두대간 코스를 다 돌릴지 최종 목적지인 백두산까지 갈 수 있는 날이 오리라 생각하며 하산하는 나는 분명 자랑이 되게끔한 사회 환경을 어떻게 풀이하면 좋겠는가. 근대는 커녕 현대사만은 거

서 동욱 (산경대 경영학과)

◇ '93여름 창작교실을 다녀와서

문학통한 진솔한 만남 이뤄져

동악인 모두의 창작교실 났으면

8월6일부터 8월9일까지 경상북도 예천 용문사에서 국문과 창작교실이 열렸다. 88년이후 중단된 창작교실이 6년만에 부활된 것이다. 동국대출신 시인, 소설가, 평론가들과 창작을 지망하는 국문과 재학생 3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문학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3박4일을 보냈다. 빠듯한 계획속에서 창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바쁜 일정이었지만 힘들었던 만큼 성과도 많이 남긴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재학생들이 준비해간 시, 소설, 평론합병회와 선배문인들의 문학강연은 창작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더욱 자극시켰고 문학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창작교실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아무래도 3일 동안 계속된 뒤돌아보는 것이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에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하

는 식사시간으로 인해 모두들 피곤해 했지만 선배님들의 문학을 매개체로 한 진솔한 만남은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예전 창작교실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선배님들은 사교 좀 쳐 주었으면 하는 시선으로 너무 안전(?) 후배들을 바라보기도 했다. 축적된 경험의 부재로 준비과정에서부터 여러가지 난관을 겪었지만 재학생들의 순수한 열의와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행사를 치렀다. 용문에서의 3박4일로 인해 우리의 창작역량이 당장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곳에서 현재 우리가 서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온 것으로 충분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된다. 찡찡고 못쓰고 있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 출발한 선배님들

이 앞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강사로 참여하신 시인 김강태 선배님이 말씀하신 동국 문학정신의 열정성을 느낄 수 있던 자리라고 생각된다. 아쉬운 점은 과거에 창작에 관심있는 동국대 전학우들의 행사였던 창작교실이 올해에는 국문과만의 행사로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창작에 관심있는 동국대 학우들과 평소 학교생활속에서 같은 길을 가는 길동무임을 느끼며 함께해 나간다면 내년에는 동악인 모두의 창작교실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행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하신 학우들과 도와주신 한국문학연구소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4년 여름창작교실을 기대한다.

원보영 (문과대 국문과)

동문/칼럼

체코 작가 밀란 쿤데라를 알고 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대한 일련의 주제를 다룬 그의 장편소설이 화제가 된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토마스 한 남자와 테레사, 사비나라는 두 여자의 젊은 인생 역정을 통해 드러난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의 의미, 육체와 영혼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조소 섞인 비웃음과 그로인해 더욱 슬퍼질 수 밖에 없는 생활사를 그려낸 파노라마에서

인의 존재에 대한 가벼움의 참을 수 없는 웃음과 눈물, 육체와 영혼의 대립, 부단한 탈출을 한 날 역사의 부산물일 뿐인가? 우리의 역사도 이제 존재의 거친 바다를 울지도 못 한채 항해해야만 했던 대다수 소시민들의 숨겨진 삶을 애정 어린 손길로 복원해야 할 때라고 본다. 토마스는 왜 수많은 여자와 성적 유희를 통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자정했는가. 테레사는 왜 육체와 영혼의 무거움에 짓눌려 어머니의 속물근성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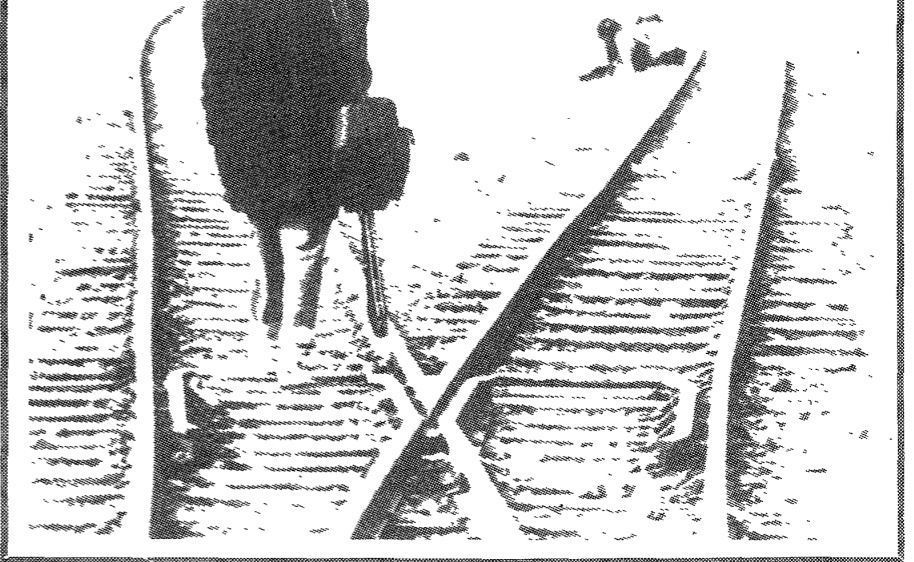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가벼움 극복의 힘을 길러야

른 감동을 맛보았다. 지금도 이 소설의 판매고는 꾸준히 서점가의 스테디셀러로 자리잡고서 오래된 듯하다.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이치원 장황히 늘어놓은 것은 우리의 지나온 역사가 체코 프라하에 뒤지지 않을 만큼 시련의 슬픈 실태로 짠 여겼기 때문이다. 우리의 존재가 송사당처럼 가벼워 도무지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게끔한 사회 환경을 어떻게 풀이하면 좋겠는가. 근대는 커녕 현대사만은 거

온방골

- 장'란에 의견을 적어주실엔 신분은 꼭 밝혀주세요!!
- 기숙사 불교이동 학우일동
- 9월7일. 특집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Nice Q 태정
- 우리들의 맛있는 친구 강원규가 9월4일에 21살이 됩니다. 원규야 생일을 축하한다.
- MK와 HG
- 장풍이 보거라. 생일을 엄청나게 억수로 축하한다. ba 너가 태어난진 조물주의 실수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는건 케일인가?
- 92년 1학기 이부원 과대과
- 남근, 태욱, 남수 선배님들 복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열심히 생활하십시오.
- DJTC 후배들
- 9월4일. 땅돌이의 생일이네요.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 조경 심장생일동
- 내 친동생 훈상이의 생일(9월 16일)을 축하하고, OP고사 불렀기를 바라고, 두가지 다 축하받았으면 좋겠다.
- 형이가
- 9월2일의 원삼선배의 귀빈진 날을 축하드리고, 선배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 5인방
- 미술학과 의 못나인 안희희의

조대 사진 갈림길에서 조 현진 (공과대 건축공학과)



배를 규제하기 용이했던 과거 중앙방송체가 오히려 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화 면에서 선택의 폭이 넓었다는 의견이 제시될 정도이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방송제 제 변경 이후 각 방송사별 자율경쟁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초기적 패턴현상으로서 진단하여 조기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송사별 자정적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으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언론 유관단체에서도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영, 공영적 성격의 국민재산인 전파가 수많은 시행 착오 후에 제 자리를 찾도록 방치하는 소극적 시정행위를 반복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은 결국 방송을 시청하는 수용자의 몫으로 남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서울캠 보도 편중

지나호 동대신문(8월25일자)은 골몰대로 골몰있는 서울·경주 캠퍼스간의 이질감을 절실히 맛보게 해 주었다. 8편으로 인쇄된 지면에는 경주 부총장 임명·경주 자연과학관 개관·동악광장·한대 재과업 투입·경주 학생회비 환탈 등으로 제목마저 초라한 뉴스들로 일색이었다. 물론, 질로 따진다면 제목과 지면의 차이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지만, 신문의 호수가 바뀌고 학기가 달라져 볼 수가 없었다.

비단 서울·경주간의 차별보다는 어제와 오늘의 일인이 아닐 것이다. 모든 행정이 서울로부터의 일방적 하달이 대부분이고, 영문도 모른채 실행하는 일들이 태반일 것이다. 일소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인한 화제가거니 뉴스감으로 지면화될 수는 없었지만, 그 안 일일이야말로 세간에서 부는 개혁의 신바람을 타이랄 것이다. 서울 중심의 큰 화제가거니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발로 뛰는 기자들과 깊은 관심의 학우들 눈으로 읽혀지는 신문은 만들어 나간다면 어떨까. 아래부터의 중요한 변화를 시도해 보자. 제목을 위한 사건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의 눈으로 찾아 다니자 할 것이다.

지나 계절의 이상지은현상처럼 우리들의 가을 역시 여러가지 화제가 민발할 것이다. 그 이야기들이 학내 언론의 차별 화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정론으로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을 때, 신문은 읽는 우리들의 눈은 즐거울 것이다.

배선옥 (인문대 불교학과, 본사 모니터)

적극적 시청행위 필요

항상과 다양화 등으로 국내 방송의 긍정적 발전방향이 예측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예측된 국내방송의 긍정적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요즘 방송 편성·제작 경향은 소위 '맛물리기', '유시텔성'으로 각 채널별 특성 차별화를 통한 국민의 채널선택력 확대에 있다. 또 그 내용면에서라도 시청자를 의식한 프로그램의 '회화화', '오락화' 경향으로 인해 프로그램 부분(장르)별 특성영역이 무너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볼 때 시청자들은 방송사가 연예·오락, 시사, 정보, 교양 등 각 프로그램 장르별 방송연성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가 방송내용이나 형

김양하 (한국언론연구원 연구조사국)

거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연예·오락화·경향에 대해 우리 사용자들은 적극적 시청행위를 보임으로써 국내방송이 '맛물리기' 유이한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일 TV를 끝시다"와 같은 범시청자운동부터 저질, 오락 프로그램 방송사에 대한 전화, 편지 등과 같은 개인적 의견을 활발히 제시하여 해당 방송사와 편성·제작담당자들에게 피드백을 주고받도록 하는 적극적 수용자로서의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알림

- 93년도 2학기 본사 모니터로 활약할 분들을 소개합니다. 모니터는 신문평가, 여론수렴, 기사작성을 하는 중기자입니다. 동대신문과 독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로서 모니터 여러분의 당찬 활약 부탁드립니다.
- △유병봉(불교대 불교2) △김일원(문과대 국문1) △서희원(문과대 국문1) △유은중(문과대 국문1) △임종우(이과대 통계1) △오인영(이과대 통계1) △강정민(공과대 상공4) △배선옥(인문대 불교3) △이혜원(인문대 철학2) △양경미(자연대 생물1) △고계원(상경대 무역1) (여면대체부)

목 먹골

- 백이십사학인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협회가 투쟁합니다.
- 제48대 사학과 학생회
- 축하합니다
- 김진순, 회계학과 3년 과대표 팀을 축하하노라.
- 회계3 부과대표
- 홍욱원군의 귀환을 축하합니다.(한달간 출가했었음)
- 사회
- 8월 30일, 우리 윤지 고운 윤지의 생일 축하해.
- 빛동이
- 'Depence 강'의 영원한 hope, 쌍둥이의 한쪽 유나의 생일이라고요.
- 우리 매녀와 빗자루가 축하해요
- 19일은 이경태(화학) 생일입니다. 축하 해주세요.
- 친구 J
- 8월 30일 평의의 생일, 마음으로 축하한다.
- 탈구 총련
- 기영(통계1)이의 21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 백상 구호부장이
- 수고하셨습니다.
- 개강총회 협회가 치러내신 일

동악! 광장

- 영문 의학인 남부학우 여러분! 자라한만 마련합니다. 경규형, 힘들 쓰세요.
- 영문 91男
- 이진 향우회 한번 모여 얼굴을 익혀 봅시다. 화이팅!
- CYM
- 요민주 토요일요일날 탈은 길 떠나기 갑니다. 선배님 동기여러분, 새학기 힘차게 시작하면서 꼭 같이 가지구요.
- 총무
- 신신일 배대원 여러분께 축하와 무한한 애정을 포함합니다. 잘 해봅시다.
- 옥
- 제1기 도벽원(도서전 배수 협의회)회원 여러분! 2학기때는 그냥 로비에서만 서성거리지 말고 진짜 X나계 공부한번 해 봅시다.
- 렌들대장표
- 그리고...
- To, JH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길.
- from MJ
- 동대신문을 이기는 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여러분께서 '동악광장'에 보내주신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동악광

수고하셨습니다

- 생일을 무진장, 억수로, 맛있게 축하해요.
- 미술학과 이쁜이, 민욱, 선경
- 수학교육학과와 93 이현경양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 조경과 CJ
- 金東賢 늘 성실하며 믿음직한 충정도 친구의 귀족을 축하하며 낯선 땅 서울에서 몸건강하라고...
- 조경 여우
- 그리고...
- 7월22일 순민이형의 회진이기를 맞았습니다. 한편 근방이형의 준서가 8월24일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는데...
- 생물학과 92학번
- '시선'의 가을은 고추장자리! 新 '시선'을 위해 살아갑시다.
- 대부 문
- 사회가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변할 수 없는건 우리의 투쟁의 의지, 우리들의 사랑이다. 무사나말이여, 사상무장 해방투쟁의 전위여.
- 무쇠나팔 92
- 지난 26일 오후 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진동 주공아파트 근처인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학생증, 현금카드 2장 등이 들어있습니다. 습득하신 분은 선불이라도 꼭 돌려주십시오.(선불과 4년 우편함이나 선불사로 연락바람)
- 법학과 88학번 이진호

정부는 지난 8월18일 농업인구의 감소와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유휴지 증가 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맞게 농지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다가오는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시킨 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농지규모의 대형화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농지소유자격의 완화: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형태의 농업생산법인의 설립을 허용하고, 이러한 법인과 농업연구기관, 종교 기타 농지재생산자 및 생산지단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한다. ②농지소유 상한의 확대:농지소유 상한을 농가의 경우 10ha에서 21ha로 확대하고 농업생산법인은 30만평(100ha)으로 한다. ③비농민 소유 농지의 환원:이 법의 시행 이후 상속 또는 이등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할 경우 1년 이내에 1ha 넘는 부분을 자진 매각토록 하고, 기간내 처분하지 않을 시 농어촌진흥공사가 협의·매수토록 한다. ④취득자격의 완화(6개월 거주요건의 폐지):농지 소재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농지매매등명이 가능급되어 거래가 가능한 현행법을 개정, 영농의사가 있으면

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이런 내용의 법이라면 농지법이라는 익숙한 이름보다 '농지전용과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라 명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며, 제정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농지의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에 낫다.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경자유전의 원칙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소유자격을 완화하고 소유상한을 확대한 것은 농지소유의 여건상 전혀 불가

하게 되고 있는데, 전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던지는 격이다. 정부는 현재의 땅값 상승이 사용 가능한 토지의 부족으로 인한 것처럼 속여 기용토지를 늘리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인양 주장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조성한 공공부지가 분양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사용할 땅의 부족이 땅값상승의 원인이고 사용 가능한 땅을 넓힌 땅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추상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농지법안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농지기본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어야 한다.

첫째, 경자유전의 원칙을 기필코 지켜야 한다. 경장을 농사 짓는 농민과 생산자 조직만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장기적으로 생산과 소유를 일치시켜야만 농업생산력의 발전도 가능하다.

둘째,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여 농지가 시정 소유의 대상이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민중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공적인 재산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법에 명시하여 비농민의 농지는 자진하여 처분토록 하고 처분하지 않을 시 국가가 강제매수하여 장기 임대하거나 싼 값에 생산농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농지의 소유와 전용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여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전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농지전용의 허가권한을 가진 농어촌 발전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에 마을총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실질적인 주민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여 농지의 전용을 엄격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꼭 필요한 기용토지의 확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고 그 개발이익을 농업에 환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기본전제로 하지 않는 법이라면 그 법은 기본적으로 농지법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농지의 특수성상 한번 훼손된 농지는 다시 농지로 되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음을 고려한다면, 농지의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농지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시사 논단

임 중 근
전능 조직국 기사



농지전용 제한하는 법돼야

농 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것이 가능할 지라도 일부의 농지과점으로 농업 또는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대다수의 농민에 대한 그 어떠한 대책도 없다는 점에서 반농업적·반농민적인 것이다. 구입을 통한 농지소유 확대는 적어도 농지를 사기 위한 이윤을 농업을 통해서 획득해야 하며, 구입한 농지에서 구입비의 이자 이상의 이윤을 취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농업이윤은 고사하고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하여 농지의 가격이 과도하게 비싸 농사를 통해 농지자격을 이자조차도 뽑기 어려운 한국농업의 현실상 농지소유의 확대를 통한 규모화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3ha 이상 소유농가가 전체 농가의 3.2% 5만3천여구에 불과하며 이들이 규모확대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소유상한이 너무 적에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상한의 제한에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불배 소유자격을 완화하고 상한선 확대의 실질적 의도는 규모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자본을 농업에 끌어들여 농지를 투기장화하고 경쟁력이라는 비명하에 가족농을 해체하는 것에 있다.

다. 뿐만 아니라 소유지를 처분하지 않을 시 농어촌진흥공사가 협의·매수한다고 하지만 소유자가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1ha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그 초과분을 처분하도록 한 규정은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나 문제점이 적지 않다. 왜냐하면 농지법의 제정 이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이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현재 전체농지의 37.2%에 이르고 있는 입차농지의 농민환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대학생 소비자 피해 실태

"처음에는 영어회화 책이란 줄 알았는데 결국 교재판매나라구요" 라고 말하는 이모양은 대학 신입생이다. 강의가 끝난후 5-6명의 선배들이 둘러싸서 영어를 공부하는 책이라고 소개하길래 호기심에서 구입했으나 며칠뒤 교재와 함께 청구서가 집으로 날아왔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알아본 소비자 피해는 다중다양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전화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중에서도 학기가 시작되는 기간에는 부쩍 늘어나는 대학생들의 소비자 피해 실태와 그 대책을 알아본다.

영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이라는 위치와 더구나 절없고 경쟁없는 신입생이라는 점을 이용한 이런 피해는 잦다. 대학생들의 주된 피해는 대부분 어학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학공부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가 많아진 것을 이용한 사술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같은 사례는 우리주위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허모군(화공)은 학기초에 가입했던 시사영어

사 E.O.S.원을 그만두고 책과 테이프를 반품했다. E.O.S.는 지난 1월 강을 주관하는 학복위와 아무런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학교에서 주관하는 강좌인양 어학오리엔테이션이 있다고 신입생에게 개별 연락을 했다.

영어는 필수라는 설명과 매달 일정 금액만을 내면 교재와 테이프 지급과 함께 강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었다. 이런 식

게 직접 전화를 걸어 판매하는 방식이다. 답답한 말투와 끈질기게 설득으로 웬만한 사람이면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전화판매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당했던 박모군(무역)은 "3백명 중 내가 선택되었다는 말에 쉽게 기절할 수 없었다"며 어떻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 모른다고 하며 불만을 표했다.

다른 피해사례로는 지역쪽 취득을 위한 허위광고에 속은 경우이다. '월소득 2백~3백만원'이란 신문 광고를 보고 신청서를 냈다가 교재

허위 광고에 현혹된 소비의식

의 회원이 많으나 그 실상은 이렇다. 테이프와 교재판매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강의가 제대로 일리만두하며 강사도 미국인 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므로 강의의 질 또한 낮을 수 밖에 없다. 허군은 "50분 강의는 책을 그대로 읽는 것 뿐이고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반응이유를 밝혔다. 이렇게 학복위에 반쯤은 책과 테이프는 20여개에 이른다.

피해의 다른 유형으로는 '텔레마케팅'이라는 것인데 이는 소비자에

를 팔기위한 허위광고임을 알고 취소했다는 사례를 접했다는 소비자 보호원의 한 상담원은 일간신문에 크게 난 광고라고 함부로 믿지말 것을 권고했다. 대학학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개 책을 팔기위한 목적으로 자격증만 취득하면 취업 보장과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과대 선전하고 있다.

이런 피해들의 원인은 사기성일면 판매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으나 소비자 당사자들 또한 잘못이 있다. 계획없는 충동구매로 쉽게 현



용증명을 발송한다. 내용증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입했으며 왜 해약하고자 하는지 해약사유를 밝히면 된다.

물품구입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꼭 받아두고 그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짜"를 좋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심리일 것이나 공짜만큼 비싼 물건도 없다는 말은 공짜가 무조건 좋지만은 않음을 시사한다.

현명하고 계획있는 선택이 필요하다. 의식있는 소비자에게는 약탈상술은 발붙일 곳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부)

사설

적극 나설 때다

2학기학원자주회투쟁은 이제 전면수업거부와 청와대, 교육부 진정서 접수투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31일 비상 학생대표회의를 통해 논의된 전면수업거부투쟁은 오는 2일 총학생회 2학기 전근식을 기점으로 각 단위 토론을 거친뒤 비상학생총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이처럼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재단은 어떠한 입장표명이나 방안제시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1학기 학생들의 의회제기와 반발에 의해 물러난 3인의 이사자리에 새로 선임한 이사 문제를 놓고 고민중일 터이다.

이 문제를 놓고 지난달 27일 열린 재단이사회의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민은 학생회측에서도 문제제기하고 있듯이 재단이사회를 통해 선임한 3인 이상의 교육부 승인과정에서 이사자격인 교육경력 소유자가 전체이사진의 1/3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인 것이다.

이에 학생회측은 '조제중단내부의 분과적 노력'이라는 이사회구성'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재단이 학교 운영·육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무작업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러한 학생들의 지적은 비상학생대표회의의 논의와 함께 재단의 파행운영에 항의·외부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교육부 진정서 접수투쟁을 진행시킬 예정이다.

이제 1학기 부정비리 이사의혹 문제제기로 부터 시작된 재단학신투쟁은 재단의 운영상의 문제점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학외의 여론과 심판까지 기다리게 된 것이다.

얼마전 재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진정서를 제출해 대외적 관심을 끌고 있는 대구대 사태만 보더라도 학내의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고 진위가 가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현 학내사태는 학교당국이나 학생들의 줄다리기만이 계속되어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사회의 공개적 심판으로 결과가 순탄하리라고 전망할수도 없다.

현재 중대내부에서도 본교사태 해결을 위해 총회나 회의니 하며 안건으로 계속 올려지고는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제시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교수회도 대외의원을 열어 학생들의 정제철회문제를 논의했거나 학교당국장과 별 다를 바 없는 명분론에 그쳤다.

직원노조도 오는 3일 정기총회를 열고 현학내사태를 주안건으로 상정·논의할 예정이나 이 또한 뚜렷한 입장표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학내사태가 심각하니까하는 식의 소극적 생각이 각 기구 명분을 위한 논의에서 구성원간의 협의나 이견을 좁히는 대안을 기대할 수 없다.

지금 이 시점에서 최우선은 이 문제를 명분론이나 극단론적 관점에서 풀 것이 아니라 동국발전의 대에서 범중단적, 범동국적으로 풀어야 하며 북부투쟁단 재단의 입장표명과 모든 학내 구성원들의 학내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이것은 지금의 문제가 동국인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東國漫評

김성남



(사회부)

미래기술의 총아
인공지능로봇의 꿈을 가시화하다!

—스마트 용접 로봇 S-100개발—

인간처럼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로봇— 더 이상 공상과학소설의 소재가 아득한 꿈이 아닙니다. 세계의 로봇산업은 벌써 융합인식을 넘어서 초기 인공지능 로봇의 개발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얼마전 까지만 해도 산업용 로봇마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로봇산업의 불모지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로봇산업에 뛰어들어 우리는 우선 산업용 로봇의 자체개발로 첨단 로봇기술을 축적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 슬한 실재와 좌절의 거듭한 끝에 마침내 SPOT용접 로봇의 자체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국내최초의 자체개발이라 자문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보다 개발기간만 1년 이상 단축한 현대 로봇은 우리나라를 본격적인 로봇산업국 계도에 진입시켰으며, 값싼 부품의 국산조달로 인한 엄청난 수입대체효과와 국내 로봇산업의 도약기반 구축이라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자신감으로 최첨단 산업용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의 자체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1호 인공지능 로봇을 우리 손으로 만들기 위해...

現代

봉건적 관행척결이 선결과제

한국불교의 과제와 전망

글쓴이 순서

1. 한국불교, 무엇이 문제인가
2. 근·현대 불교탄압사
3. 불교관계 악법
4. 종단개혁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를 진단한다

불교계 내외를 막론하고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말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불교사상의 인간해방적 전통과 요익중생의 실천성을 위해 한국불교를 올바르게 변화·발전시키겠다는 실천적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은 사상에 입각하여 현실에 대한 진단과 그 원인, 과제와 방향점, 이를 위한 해결방법 등을 도출함으로써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불자들이 어떠한 실행활동을 하고 무엇을 혁신해야 할 것인가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들추어내는 것에서 그치는 모든 주장은 진정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아닐 것이다.

현재 한국불교는 무수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불교 외적으로 법림하는 사탄 사상과 정적으로 인해 다친 위기 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사상적 깊이와 대중적 확산에의 정체는 물론이나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의 모습이나 세인의 지탄을 받는 일부 수행자의 모습, 불교를 역동적으로 이끌어나갈 주체의 미비 등이 현실적인 한국불교의 모습을 부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여년 사이에 전신으로 한국불교를 격정하고 새롭게 발전시켜 가려는 노력들이 작지만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은 불교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아직은 교계의 커다란 흐름과 통일적인 움직임으로 가시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여전히 한국불교를 왜곡·정체시키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려는 불자들의 노력은 중요할 것이다.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열거하는 것은 어찌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늘어놓기 쉬우며 그럴수록 답답함과 가슴이悶 느껴진다. 문제점을 아는 것이 미래의 발전적 전망과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면서도 바로 나, 바로 우리가 한국불교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이 굳건히 설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한국사회의 근본 모순에서 불교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의 불교는 사상의 올바른 정립과 확산에 근본적으로 장애가 조성되어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한국불교를 책임지고 있는 사부대중의 온건

한 책임이다.

우선 한국불교가 절곡되고 정체되는 근본 원인을 본인은 한국사회의 전체의 모순에서 찾는다. 그것은 50여년간 지속되어 온 이념의 분단과 예측, 비민주적 정치경제구조에서 기인한다. 외적인 조건은 주체적인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인 역량이 없을 때에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불교 또한 외적인 조건의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니 오히려 더욱 강한 영향권하에 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 나라의 현실이 외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반북반공 이데올로기에 쫓겨온 울바른 판단을 차인당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의 논리로 민중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권리가 제한당할 때 불교라고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불교에서 특별한 혜택이 있어 왔다고 믿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다. 척박한 조국의 현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은 오직 민족(민중)을 탄압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소수의 세력일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서구사대주의문화와 정치, 경제적 예속상황은 전래의 전통종교에게 더욱 무자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수많은 제3세계, 피식민지국가의 모습에서 보듯이, 한국불교 또한 조국의 분단·예속상황으로 인한 피해자일 뿐이다.

결국 한국불교는 자구적이지 못한 한 조국현실에서 근본적으로 민족 전통성을 유지할 문화적(종교적) 가능성만으로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미군정 이후, 분단국가 이후 이 나라에서는 불교에 대한 문화적 차별·억압정책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것을 충실하게 제도화한 것은 역대 독재정권이었다. 이승만정권의 정치유사에서 박정희정권의 불교 재산관리법과 교과서, TV 등 교육 문화매체를 통한 불교왜곡, 전두환 정권의 10.27법안과 노태우정권의 계속된 불교탄압사태, 현재까지 계속되는 전통사찰보존법과 종교교편법, 차별정책을 줄줄이 열거해도 끝이 없을 정도다. 이것은 정권 당파의 종교가 무엇이던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의 기본 성격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개혁없이 한국불교의 온전한 개혁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논리가 나온 것이며 80년대 들어 한국사회의 자주·민주·통일의 실현을 위해 불교계에서도 실천해온 것이다.

비민주적, 비현실적 교단구조는 전횡되어 왔다

한국사회의 근본 모순에서 불교의 문제점이 파생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전 발행했던 군부대내 체불사건등으로 최근 불교계 내부에서는 지체정화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화의 노력들이 일어나게된 근본적 배경과 앞으로의 한국불교를 4번에 걸친 시리즈로 전망해 본다.

편집자



이 현재 한국불교의 사부대중에게 면피부를 안겨주는 것이 될 수는 없다. 근본원인을 외부에서 찾아보는 것은 보다 객관적인 현실인식을 하기 위함일 뿐이다. 외적인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용인하거나 또는 그것을 이용하는 내부의 문제가 실제로 한국불교를 꺾어, 왜곡시켜왔음을 직시해야 한다.

불교를 계신적으로는 행정적으로든 지도하고 있는 교계 지도부가 무엇보다 잘못되었다. 일부 상층인사는 잘못된 사대주의적 독재체제에 영합하여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불교인도들의 일관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조계종의 3대파계처럼 포교, 역경, 도파양생 등의 현안의 과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상층이 잘못된 행정을 펼 때에 이를 제할 민중적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일인 독재체제처럼 몇몇 교계 인사에 의해 불교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침체의 늪을 보다 못해 다양한 형태의 사찰교당 활동, 사회봉사활동, 수행상 확립을 위한 승가·경년·학생의 단위별 실천, 사회변혁을 위한 노력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에 대해서도 별볼일없는 지원, 지도편달이 있기는 커녕 백안시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문제다. 교계 지도부의 무사안일과 구태는 책임있게 불교를 이끌어갈 한 집단으로서의 도덕성과 덕망, 지도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실

지 선

(전국불교운동연합 상임의장)

단과대 학장에게 듣는다

⑨ 사범대 김창수학장



연말엔 교육특강 강화할 터 교직원출 기회확대에 주력

현재 학원권이 위축된 사범대학은 1988년에 훌륭한 교사양성을 목표로 신설, 4학과로 편성되었고 73년 학원권이 준공됨에 따라 새로운 예비교사의 터로 자리잡았다. 1910년 명진학교를 불교사범학교로 개칭한데서도 알 수 있듯 참스승의 양성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수차례 학과명칭 개명, 증설되어 오늘날의 7학과와 1천2백여명에 이르게 되었다. 78년 교육대학원의 신설로 학문의 열의와 수준높은 교육을 기대하게 된 사범대학의 김창수(역사교육)학장을 만나 현재 사범대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발전전망에 관해 들어본다.

— 사범대학으로서 갖는 교육의 어려움은

= 사범대는 우수한 교사양성과 학문연구중요성이라는 두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잘 조화시켜 교육성과를 높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현재 사범대학이 안고있는 문제점은

= 강의실 부족, 입체적인 교육에 필요한 시청각실, 교육자료실, 컴퓨터가 마련되어 있지않고 방음시설이 되어있지 않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 지난 4월28일 학생들과 합의했던 합의문의 현재 성과는

= 실험실습내역 공개는 과단위로 이루어졌으며 사범인의 숙련이던 교육실습실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열악한 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

— 교육실습실의 사용 용도와 그 시기는

= 시청각실, 기자재 보관실, 자료 제작실 등으로 이용되며 슬라이드와 비디오 등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교육실습효과를 높이기 된다. 한달간의 공사가 끝나는 오는 9월말경에는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출신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출제방식을 기대하나, 현 임용고시로서는 교사 선발기준을 잡기가 어렵다.

= 사범대에 신실이 요구되는 학과다. 사범대 기능을 전체로서 살리기 위해선 외국어 교과과 과학교과가 필요하다.

— 졸업후 교직원출에 대한 대책은

= 금년부터 국·공립 사범대학이 동일 위치에 있게됨에 따라 금년말부터 교육특강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범학교의 공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미지적으로 학생들에게 당부 하고 싶은 말은

= 본격적인 면학분위기에 힘써야 하며 세계의 대학성과 경쟁해오지않을 새로운 학생상을 정립해야 한다. 특히 사범인들에게는 앞으로 교직원출을 제1목표로 하는만큼 인격과 학문이 타학생의 모범이 될 것을 부탁한다.

(끝)

학반기 업종별 취업전망 ㉞

자격증 소지—경험자 위주 선발

광고·제조업 부진으로 밀린 광고비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로 있는 House Agency 채용은 소수로 있을 예정이나 독립광고 대행사는 아주 저조한 채용이 예상된다.

광고 시장조사부 전적으로 하계 MR, 광고수주활동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분야에서 일할 AE 조맹 활동 파트, 영상편집 매체적, SP적의 채용에 관심을 기울여 보길 바람. 정기 공채보다 소수 수시 채용이 큰 특징으로 예정됨. 제 일기회, MEO에드림, 삼희기회, 엘지제노, 대흥기회, 금강기회, 세그리, 코레일 등의 House Agency회사 채용을 눈여겨 보시길. 광고대상인상경력 유리함.

은행카드사: 소비문화 고도화로 카드이용객이 늘고 있다. 미래를 앞마는 화폐시대라고 한다면 신용카드가 소비생활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타 금융조직에 비하여 가장 인력 채용이 폭넓을 것으로 예견됨. 은행계 카드사인 장은신용카드사, 국민신용카드사, 비씨카드사의 채용은 부분증가, 전문계 카드사인 삼성카드사, LG카드사의 채용폭이 다소 넓을 것으로 볼. 성취 유망이 있고 성취의 사인 채용시 주요 관련이 될것임. 카드 영업 직종의 채용이 많아질 것임. 카드관련 법을 전문적 채용 수요도 예견됨. 다양한 여행경험, 통신판매에 참여본 경험이 있는 인재들은 카드회사 채용 전승시 좋은 플러스 평가가 예상된다. Card ban게도가 확대되면서 재무, 회계분야를 해놓는 것도 좋은 준비전략임.

항공산업: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KFP(자세대 전투기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항공기 부품, 동체 및 날개, 항공기용 엔진 등을 생산하는 엔지니어 채용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임. 국내 항공기에는 비행기, 시스템분석, 항공전자 설계, 시스템 통합, 항공전자중 Radar, 유체역학 엔지니어 분야에 채용이 증가할 것임.

스튜어디스 채용증가, 일반 항공사 관련적 여대생 채용은 작년수준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됨. 항공제조 분야는 항공기 부품에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김 농 주

(연세대 취업담당관·직업평론가)

공 고

83학년도 졸업대상자(83학년도 제2학기 학년진급대상자)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의 지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함.

다 음

1. 지원서접수기간: 83. 8. 31(화)~9. 3(금)
2. 접 수 처: 학적과
3. 지원 자 격
 - 가. 84년 8월 졸업대상자(83학년도 제2학기 학년진급대상자)
 - 나. 전공과정 이수 매학기 취득학점이 17학점(90년이전), 18학점(91년이후, 83학년도 제2학기 포함)이상이고 전학년 평균평점이 3.0이상인자(4학년 2학기는 제외함).
4. 제 출 서 류: 가. 복수전공이수지원서 1부.
 - 나. 성적증명서 1부.

교 무 처 장

협 조 문

교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내차량 출입을 통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출입통제기간: 83. 9. 1. ~ 83. 11. 31
2. 출입통제차량
 - 가. 학생 자가운전 차량
 - 나. 외부차량
3. 기타
 - 가. 교직원 차량은 해당부서(총무과)에 스티커 발급인정 후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외부 차량은 정문에서 출입증을 교부받아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교통난 해소를 위해 10부제 운영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무 처 장

93' 2학기 DKBS 주간 편성표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목	금	
8:20	아	P D 김경호	P D 최경아	P D 김재현	P D 김경호
		ANN 홍주화	ANN 이용표	ANN 홍주화	ANN 김말순
45	45	ENG 권경애	ENG 김이중	ENG 김도병	ENG 고재환
		PD권순영 ANN홍주화	PD엄정영 ANN이용표	PD주은희 ANN홍주화	PD장정관 ANN김말순
50	50	PD엄정영 ANN홍주화	PD장정관 ANN김말순	PD엄정영 ANN김정란	PD김정란 ANN김정란
		DKBS 캠페인 · DKBS안내 · 반야심경			
12:20	12:20	영의 한울타리 P D 최경아	백상군연꽃향 PD주은희 ANN 김철호·김정란	짧은날 짧은시간	살며, 생각하며 PD 허현아
		ANN김정란 ENG이경태	5분칼럼ANN장정관		ANN김정란 ENG권경애
35	35	세울의 소리 PD 김성조	영상산책 PD 최경아	PD 김재현 ANN 정경은	나도 한마디 ANC주은희 ENG권경애
		ANN김철호 ENG이경태	ANN정경은 ENG김기경	ENG 이경태	취재의 현장 P D 장정관 ANN 김성조
50	50	PD권순영 ANN김말순	PD장정관 ANN홍주화	PD박진숙 ANN김말순	PD권순영 ANN김말순
					REP 박주부 뉴욕 박경민
55	55	함께 부르는 노래 PD 김경호 ANN 정경은 녹음			
					이경태
1:00	1:00	문학의 오솔길	음악 광장	음표와 선율의 만남	그대가 흐르는 시간
					대학규장 근본제작부 연출김재현 ANN 아나운서부 뉴욕박경민 ENG김기경
4:40	4:40	P D 허현아	P D 허현아	P D 윤재현	P D 윤재현
		ANN 김정란	ANN 김정란	ANN 정경은	ANN 김정란
5:12	5:12	ENG 박경민	ENG 박경민	ENG 김지은	ENG 김이중
		PD김성조 ANN홍주화	PD엄정영 ANN이용표	PD장정관 ANN김말순	PD박진숙 ANN김정란
20	20	백상군 연꽃향	대학규장	나도 한마디	취재의 현장
					함·부, 캠페인

◇ 원로작가들의 학문열정

서정주 시인의 '미당산문'

"후배문학도들을 위한 조언"

스무살 독서시절부터 러시아 여행기까지

"후배 문학도들 위해서"라고 집필 동기를 밝히는 미당 서정주 시인. 작가 생활 60년 동안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틈틈히 적어 놓았다가 최근 출판한 '미당산문'에 대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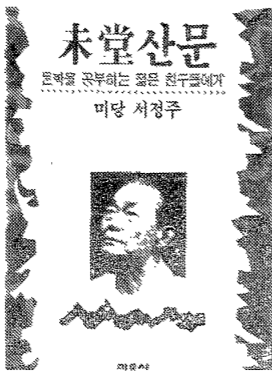
호흡이 긴 분장과 미당 특유의 문체를 사용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치'를 탐독하던 스무살의 독서추억에서부터 최근에 다녀온 러시아 여행기까지 고르고 고른 후에 뛰어난 미당산문은 '문학을 공부하는 젊은 친구들에게는 부채가 불어났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출판소감을 내신하는 미당은 자신의 세계관, 인생관, 종교관 모두를 담았다며 웃음을 보인다.

"글쓰는 사람이 자신의 재주와 솜씨만큼 믿고 제대로 된 문학을 하기란 어려운 것"이라며 자기 자신의 관찰력과 개성적인 시각을 갖기를 당부한다.

오랫동안 집필한 책이건만 이것으로 만족하기는 어렵다는 미당은 절제력 있고 감화력 있는 글을 쓰기 위해 '절제'를 노력중이라고 한다.

독자의 정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이 좋은 글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미당은, 그래서 글쓰기를 무척 어려운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독자 중 어린이 독자들의



정서에 파고들 수 있는 글을 집필중이라는 미당은 자신이 어렸을 때 마음 노인들이 집어넣어 주었던 옛날 이야기를 어린이에게 알맞은 표현으로 구사하고 있다.

어린이를 좋아해서,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들이 잊혀져 가는데 아쉬워서 더욱 열심히 쓰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산문 집필에 바쁜 한편, 지난 45년 동안 써온 시가 약 1백여편에 이르고 이를 현재 정서중이라고 한다. 이 시들은 9월 중순경에 되려 또 하나의 시집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글을 쓰는 동안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이 "사회에서 제대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사회의 모태인 자연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가. 역사속의 자기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미당은 우리문학과 세계문학을 고루 공부하는 중에 해답을 발견할 것이라는 귀범도 함께 했다.

杜甫



평생을 '두보'에 대한 '작사랑'으로 살았다는 본교 국어국문학과 이병주교수는 중국 당나라 때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두보를 연구하고 '두보'라는 책을 펴낸 또 한 분의 원로작가이다.

"두시언해는 내용별로 묶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난해해서 제작연대별로 새롭게 집필했다. 또한 많은 고이들을 현대어로 바꾸고 어학적인 내용 분석이 아닌 문학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라고 집필동기와 저서약평을 밝히는 이교수.

평생을 두고 연구한만큼 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도 많은 모양이다.

내용이 어렵고 분석하기도 난해한 두보의 시를 연구한지 40년, 그리고 집필하는 데만 5년이 걸렸다는 '두보'는 이교수가 젊어서부터 출판 꿈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두보라는 인물이 출생한 곳은 '낙

이병주교수의 '두보'

"두보에 대한 짝사랑"

문학적 분석 시도...두시이해에 도움

양. 그가 자란 곳은 '서안'이다. 그가 자작생활을 했던 곳은 모조리 찾아다니기 위해 8번이나 중국을 다녀온 이교수는 '두보'의 자취를 찾아 다니느라 고생했던 기억을 더듬었다.

자료가 없어 한 학자 선생들을 찾아다니며 공부를 해야했던 이교수는 그때 도움을 주었던 권상노 신호

열 선생을 소개한다. "내가 존경하는 분은 양주동선생이지만 정작 나를 가르치신 분은 권상노 신호였다. '두보' '이름'이라하며 그대를 회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40년의 연구결과인 '두시언해'는 현재까지 모두 7권, '두시언해비주(1988)', '두시언해초(1988)', '두시언해(1970)' 등의 서적 가운데 자신이 가장 커다란 애착을 느끼는 작품은 처음 펴낸 '두시언해비주'라고 한다.

교수직을 퇴임한 지금은 1천4백51수의 두보의 모든 시를 번역하기 위해 또 한번 도전해 볼 작정이다.

"나의 시가 남을 놀라게 못하면 죽어서도 쉬지 않겠다", 생전에 두보가 남긴 말이다. 오래 전에 죽은 두보는 이병주교수 덕분에(?) 죽어서 편히 쉬 수 있을 것만 같다.

(필)

달이나 신강에



복권 할아버지

김정미 (문과대 영문과 교수)

요사이 장안이 유쾌없이 출렁인다. 모두가 온 때문이다. 특히 젊은 손들이 내리는 한숨소리가 측은하기까지 하다.

한 경제학자의 지론에 의하면 돈의 속성은 묘해서 조금 가진 자나 많이 가진 자나 똑같이 부족함을 느끼며 '좀 더! 좀 더!'하며 손을 벌리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론일 뿐, 돈의 검은 속성에서 벗어나 슬기롭게 거느리는 사람도 있다. 예로부터 "돈 쓰는 것보단 사람의 됴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누가 돈 2만원을 내게 선물 내놓으며 한번 마음대로 써보라던 난 어쩔 것인가? 맘에 드는 친구를 불러내어 뜨거운 할아버지 후후 불며 웃음까지 섞어서 배불리 먹고 난 후에 평화 한 편을 볼 것인가? 아니면 평소에는 구경만 하던 '한울'의 양지머리 부위를 성큼 사서 풍광이라도 맛있게 끓여 식구들과 나눌 것인가? 하긴 2만원 정도라면 별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쓸 수도 있다. 그러나 돈의 액수가 커지면 사태는 달라진다. 갑자기 1억원이 생겼다 치자. 벌써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아니, 60억이 생겼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기 보다는 그 돈의 처리방법을 놓고 궁리하느라 밤잠도 설칠 것이다. 또 불안한 할 것이다. 하긴 몇년전에 한 호방한 사람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친원짜리 지폐로 바꾸어 서을 거리를 차 타고 달리면서 길가에 흩뿌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광경을 놓고 "돈 한 번 잘 썼다"고 말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만치 6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잘 쓴" 실제 이야기를 알고 있다. 이번 여름에 들은 이야기인데, 복권에 당첨된 한 할아버지에 대한 실화이다.

몇년 전에 호주에서는 복권 추첨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연거푸 몇차례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복권에 걸린 상금이 여러차례 누적되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0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 때에 사람들은 과연 이 엄청난 행운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가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다시 추첨한 결과 63세 인 한 노인이 당첨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노인은 이 아이미러한 액수의 돈을 받게 되자, 너무도 흥분되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이튿날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취했다. 이 노인은 그 돈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반자마자 여러 복지단체와 가까운 친지를 중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다. 그리고 한 시간 내에 그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돈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는 동기를 물은 기자들에게 "첫째로 나 혼자서 이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못쓰게 될 것이고, 둘째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고, 셋째로 돈을 갖고 있으면 계속 불행해질 것이고, 넷째로 돈을 마음대로 쓰는 위력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대답했다.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내어주었으니 아깝지 않느냐는 질문에 "나는 바닷가에 좋은 집이 있고 타고 다니는 좋은 차가 있고 연금을 받으니까 그것으로 족하다"고 했다.

노인의 이 말은 참으로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가슴까지 뭉클해 온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하늘을 떠도는 그 술한 검은 돈봉 차중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선하게 쓰일 수는 없을까? 미리부터 부정적인 필요는 없다. 아직도 달포 반이 남아있지 않는가?

잇을수 없는 한권의 책

도스토예프스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복잡한 인간생활의 속도 묘사

도스토예프스키의 말년의 작품인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은 당시의 러시아 사회의 한 단면을 잘 나타내면서 악몽과도 같은 복잡한 인간 생활의 속도(속도)를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다.

어느날 밤, 스메르자코프는 마침내 아버지를 죽이고 3천루블을 훔친다. 그 결과 영영하게도 뜻밖에 드미트리야 형의 형을 받고 경찰에 체포된다. 집요한 이반의 규명엔 스메르자코프는 소리친다.

"당신은 전부터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었다. 나는 당신의 지시대로 죽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강박인이다."

그리고 스메르자코프는 자살했다. 이리하여 이반은 발광하고, 무죄의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드미트리야는 20년의 유형 판결을 받는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마지막 작품인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는 인간의 온갖 선악의 양상이 교차되고, 그 수성(數性)과 신성(神性)이 극명하게 묘사되고 있다. 아버지 표도르라는 인간

의 동물적 본능을 대표하는 것이며, 장남 드미트리야는 19세기 중엽의 러시아 국민의 전형적 모습을 나타내고, 추상적 사색만으로 인생을 해결하려는 차남 이반은 서구적 무신론자의 대표이며, 기독교적 사랑을 지닌 삼남 아프로사는 러시아 국민의 도스토예프스키적 미래상이다. 그리고 스메르자코프는 비굴한 가면과 검은 독을 품은 악마적 인물이다. 이런 인물들의 설정은 원대에 있어서도, 아니 미래에까지도 영원히 살아 있는 고전적 삶의 전형이 될 것이다. 이 작품이 세계문학의 최고봉이라는 말을 듣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강민 (시인·국문99출)

알아봅시다?!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하이텔문학

많은 작품 접할수 있는 장

올바른 비평자세 필요

작품들 사이에서 기성작가의 그것들이 눈에 띄기도 한다. 필자는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생활통신망을 통해 가입자들이 발표하는 시·소설등을 총칭하여 생활통신망문학이라 일컫고자 한다. 그렇다고 해서 생활통신망문학이 그 어떤 특별한 것이거나 한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생활통신망을 통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현재 하이텔·천리안·포스서브에 가입된 기성·비기성의 구별을 떠나 누구든지 자신의 창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기성작가의 경우라면 책으로 출간하기 전에 독자들에게 미리 선보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었고, 습작자의 창작품의 경우라면 작품발표 공간이 협소한 상황속에서 그 출구로 이

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도권내의 중단체도를 거치지 않고도(자비출판은 차치하고) 독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생활통신망문학의 장점이라면 그 하나이다. 대표적 본보기는 올 봄 하이텔의 '백일장'에 2년 여의 기간 동안 발표된 자신의 시 70여 편을 모아 '사랑' 바보에게 보내는 편지'란 디스켓시집을 출간한 김중태씨의 경우이다.

한편 각 통신망내에는 저마다 다른 성격의 문학동호회도 존재하고 있음을 빼놓을 수 없다. 푸른산책길(천리안), 시사랑동호회·글나래(이성 하이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있다. 생활통신망을 통해 발표되는 가입자들의 창작품들은,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의 진지함과는 별도로(앞서 지적한 것처럼 진지하지도 못한 작품도 있다.) 미숙할 또한 적지않게 노출하고 있다. 더러는 전문창작으로서 가능성이 엿보이는 작품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아직 습작기에 있는 창작자로서 어리숙함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창작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비평의 공간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그것이 전문창작자들이라면 비평가의 몫으로만 돌릴 문제는 아님은 물론 당연하다.

끝으로, 최근 하이텔에서는 역량있는 무명창작자들의 작품 발표를 도모하려는 시도도 하이텔문학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앞으로 비평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 생활통신망문학을 살찌우는데 더욱 기여를 한다면 하는 필자의 바람을 건넨다.

김태형 (법과대 법학과)



하이텔 문학은 역량있는 무명창작자 발굴에 기여하고 있다.

하이텔 문학 열혈 애호가들처럼도 모를 이 다섯글자는 그러나 이미 대중적으로 파고 들어가 갈수록 그 전파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하이텔문학이 무엇이라고 딱부라지게 정의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PC통신의 컴퓨터통신망(이하 생활통신망) 하이텔에서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하이텔문학이란 용어는 그 자체만으로 결코 유일무이한 양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하이텔의 천리안이나 포스서브의 포스서브에서도 얼마

든지 하이텔문학과의 동질성을 찾을 수 있는 문학작품들을 접할 수 있다. 유독 하이텔만을 특별시처럼 평명한 하이텔문학이란 것이 애매모호한 개념이기도 하거니와, 생활통신망을 통해 발표되는 가입자들의 창작품들이 그 질적 차별성-중중낙낙서 정도로부터 느껴지지 않는(원저의 사견이지만) 작품을 만나기도 할 것이므로-때문에, 어떤 여과과정의 거침도 없이 동일선상에서 감상해야 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습작기에 있는 가입자들의

93책의 해 溫故而知新? 하를 천 따 지 검을 현 누루 황 훈장님의 회초리를 통해 배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1년에 3만여종씩 출판되는 신간 서적들 신문, 잡지, TV... 신속하게 정리된 정보가 필요한 때입니다. 첨단 설비가 당신을 도와 드립니다. 전통과 첨단의 만남 교보문고 교보문고는 • 총연장 24.7km의 서기에 15만종 150만권에 달하는 국내의 모든 서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 14개국 700개 거래처에서 수입한 7만종 30만권의 책을 외국 서적관에 갖추고 있습니다. • 지난 100년간 구입 유망대학의 학원문, 학술지, 정기간행물들을 첨단 정보실에 갖추고 있습니다. • 회원제 교보 북클럽을 운영하며 통신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 국내 각종 문화행사의 예매권을 전신망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도서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각종 연구소, 학교, 기관, 기타 단체의 도서구입 업무에 도움을 드릴 특관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신학기 교재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교보문고 서울특별시 중로구 중로1가 1번지 대한교육보험빌딩 (대) 730-7891 (사무실) 739-2710 (도서안내) 735-6151

동발협 사업계획 자원마련 난관 봉착

발전안 논의 활발-실천 방안 제시 미흡

학술문화관 연내착공 어려울듯

총동장회(회장=황명수)측이 제안해 학교당국과 재단이 함께 참여한 동국발전협의회(회장=오복원·이사장 이하 동발협)에서 동국학술문화관 착공, 분당 한방병원 건립 등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재원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동발협은 지난달 18일 프라자 호텔에서 첫모임을 갖고 강자우 사무처장 등 재단측 인사 3명, 송석구 부총장 등 학교측 인사 6명, 박인수 상근 부회장 등 동창회측 인사 5명으로 실무진을 구성했다.

또한 지난달 28일 있었던 2차모임에서 90주년 기념사업을 개교백주년 기념사업으로 전환하자는 논의와 함께 동국중흥 발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안은 경기도 고양 또는 화계사 땅에 수도권 불교병원 건립과 재단재산의 수리사업권한 등이다.

구체적인 재단재산의 수리사업권한 방안으로는 연승림과 율정사 입자 등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안과 정각원 안뜰전조성등의 방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발협측의 한 관

계자는 "학교발전을 위해 학내사태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학교발전을 위해 학교, 재단, 동창회의 3자가 중점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학총회(회장=최순호·국교4)측은 동발협구성과 관련된 "동발협이 동국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정거처리에 대한 부담성을 인정하지 않고 3차회담에 응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학교발전이 위태되는 행동으로 나가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총학총회측은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해 보다 실질적인 발전방안들을 모색해야 하며 실현가능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국학술문화관 착공이 12월로 연기된 가운데 학교당국은 예산은 책정했다고만 전제하고 어느정도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는지 밝히고 있지 않아 공사의 착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개교 90주년 사업본부에서도 적절한 재원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공사착공을 확실히 밝히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발협측은 학술문화관 12월 착공, 분당 한

교내서점 2곳 극한대립

학부위 "직영화 반드시 이룰터"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김운현·회계4 이하학부위)의 해화관 직영서점장과 학교측의 다할관 지하 임대서점소가 맞서 2학기 교내구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학교측과 학부위는 지난 3월 복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가칭)사무국설치 협의문에서 "서점은 98년 6월 계약만료후 새 임대료 협정 등 공동 계약토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학교측은 "한양대, 외대등의 사례를 보아 직영시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 임대료를 절정하고 학부위에 임대업자 추천을 요구했으나 직영을 준비해 오던 학부위는 "수익금의 학생복지로 환원"을 이유로 직영을 주장했다.

몇차례의 협상결렬후 관리처는 내외경제신문에 임대공고를 내고 3명의 지원자 중 현 한양대 문고 임대업자 천상영(사학50 출)자를 선정했다.

1년 6개월 임대계약을 맺은 천씨는 "관리하는 학생들이 계속 바뀌는 불안정성으로 복지도 돌이킬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며 "학부위 감사도 허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학교측과 학부위의 대립은 관리처가 해화관 서점 전기·전선 단절, 학부위측이 관리처장, 후생복지주임의 전화신선을 끊는 사태로 악화됐다.

해화관 서점과 한해문고는 현재 교가를 50~60%가량 구입해 놓았으며 그중 50%는 현금거래를 하고 있다.

해화관 서점의 직원은 "두개

의 서점으로 장기화될 경우 학생들의 불만도 있지만 출판사에 동국대의 신뢰가 실추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학부위는 "학교가 합의의 파기하고 단독 임대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한해문고 폐쇄 등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라도 서점 직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위위원장 김운현은 "서점직영은 단순히 수익금을 올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제2도서관 기능까지 담당할 분기위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수익금은 과다위로 환원할 것"을 강조했다.

김군은 사학을 하고 한해문고에서 해화관 서점을 이용할 것을 학생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 학부위원장 김운현(회계4)군은 지난30일부터 서점직영을 요구하며 삭발단식농성중이다.

1학기 통산감사 마무리 총대 보고서제출 늦어져

총대의원회(의장=정주영·야간부역4)는 지난 7월25일부터 8월25일까지 모든 학생자치기구에 대해 1학기 통산감사를 실시했다.

총대의원회는 이번 1학기 통

산감사의 총평을 통해 총학총회(이하 총학) 및 중앙기구의 회계제도는 대체로 이원되지 않았으나 단과대 학생회가 많이 이원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총학감사에 대해 1학기 학원

학생회 강경투쟁 학내외 파문일듯

해설

학생들의 전면수업거부와 교육부 비리 조사 진정서 접수등의 가 구체화되면서 학내의 긴장상태로 치닫고 있다.

현재 총학총회는 1, 2차 비상학생대표회의를 통해 재단에 대한 전면적 강경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이의 반증으로 1학기 재단이사 전면퇴진이라는 투쟁기조이래서도 학내 여론을 고려해 진행하지 않았던 수업거부와 사회적파문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청와대, 교육부 진정서접수투쟁 구상이다.

이같은 학생들의 강경투쟁은 1학기 학원자주화 투쟁시 쟁점이 되었던 재단비리인사들이 여전히 재단요직에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1학기때 총학총회에서 근거자료를 통해 퇴진을 요구한 재단 이사들중 최재구, 정재철이사만이 퇴진한 상태이며 학교기여도가 없는 몇몇이사들은 여전히 이사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밖에 89년 부정입시 사건과 연루된 전산원장이나 비리인사로 지목된 재단사무처장의 퇴진은 재단이사단 내부에서 거론조차되지 않고 있다.

총학총회는 이들 인사들이 이번 학생회간부 중징계에 참여했다고 분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퇴진투쟁이 여전히 2학기에도 쟁점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구나 1학기 재단학신투쟁으로 인해 퇴진한 최재구, 정재철, 황진경이사 자리에 새로 선임된 이사들의 재정적 기여도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으

며 학생들이 제기하고 있는 재단의 안정적 운영원칙 수립, 이사의 재정지원의무화를 골자로 한 재단정관제정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학내구성원들은 1학기의 양상과는 달리 현 학내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관망자세를 보이고 있다.

학생들의 중징계철회문제를 안건으로 열린 교수회 대의원 회의에서는 별다른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했으며 직원노동조합도 오는 3월 동국관(L301)에서의 정기총회를 통한 뒤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학총회는 연대투쟁에 기대를 걸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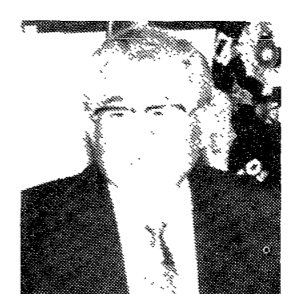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논의되고 있는 총학총회의 강경투쟁양상은 학내외에 큰 파문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취재부)

경주 신임부총장 김갑주교수를 만나

"도약의 계기 마련할 시기"

지난 8월 14일자로 임명된 김갑주(국사학)부총장을 만나 임명소감과 앞으로의 경주캠퍼스 운영방향에 관하여 들어본다.



◇ 경주캠퍼스 특목에 관한 의견은

— 교수직선제에 대한 소견은
= 이 문제로 해를 받았다면 제일 해를 받았고 피해자라면 제일 피해자다. 직선제에 대해서는 당시자 입장에서 얘기 하기가 어렵고 교수회장이나 임명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 재임기간 중 역점을 들 사업은
= 중점대학으로 승격할지 내내이면 15년이다. 뒷대에서 기초는 닦아 두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기강확립과 교육환경개선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을 개선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데 힘쓰고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

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2배에 더 이룰 수도 있다.

— 정각원 방화사건에 대해서는
= 임명직후 일어난 사건이라 처음엔 상당히 놀랐었다. 정각원의 경제체제 강화를 지지했기 때문에 법원의 윤곽이 일정정도 드러난 것으로 안다. 방화로 인한 물적 피해는 둘째 치더라도 법원에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중립대적인 동국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다고 본다. 법원 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러한 문제의 원인해소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 기타 학생들에게 하고픈 말은
= 나의 교육지표는 학생들을 사랑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경주캠퍼스와 학교의 발전을 위해 소신있게 학교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 구성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

(전원철기자)

인생은 요지경
○1학기를 보낸 동학에는 회비가 있길래는 풍년이 연출되고 있어.

사연인즉 본교에 박사학위 취득자가 32명, 석사학위 취득자가 1백87명이나 되는데 반해 거들방은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생이 8명, 제적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 38명이나 된다는데.

학교당국의 방침 상과에 결원이 생기지 않으면 재입학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에 한 학우, "뿌리대토 거둔다는 옛말도 있지만, 인생은 요지경"이라며 한탄.

방학 끝 / 글사시작 /

○개강이 되자 본교 교정 여러곳에 "방사중" 표지판이나

"동양탕 궁탕탕"공사소리가 하나 들쭉 등장하고 있다는데. 이런 공사 소음때문에 원흥관에서 한 교수의 강의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 교수 방학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개강만 되면 강의를 큰 지장을 주는 공사를 시작하려고 불만을 나타냈다고.

○7월초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경범죄처벌법개정규정이 운방골에서 기를 피지 못하고 있다는데.

곳곳의 휴지통옆에 너저분한 담배꽂이나 종이컵등이 작은 것부터 고쳐 나가지만 목표 아래 시행된 이 제도가 잘자리 를 잃게 한다고.

시키지는 합시다요"
"신설" 뜻따르는 "핀리"
○은방골에서는 요즘 동국음향의사랑 중의 하나로써 정문 가로수, 상점등, 학교 조경도 설치로 학교 꾸미기에 한창인데.

새로운 시설을 확보도 좋지만 예전 건학이념을 상징하기 위해 원로관 앞에 설치한 '태극과 일자' 자연조형물은 내내 방치해두고 있어 어떤 문양인지도 모르는 학우들이 태반이라는데.

무덤처럼 변해가는 상징조형물을 본 한 학우 왈 "조형물 신설도 좋지만 관리소홀로 학교를 무덤으로 만드심은 좀 심합니다요."

조형물 관리소홀로 학교를 무덤으로 만들어서야

이 소식을 들은 학교의 관계자는 "1학기중에 학생들이 그렇게 시달림을 받았는데 방학때는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며 반문.

씨구러 앞심

2만5천원의 기금(?)을 걸고도 시정되지 않고 버려지는 휴지나 담배꽂이들은 어느정도의 자제분이 것인지, 이를 본 회장부대자 왈 "순간의 실수로 당신의 양심을 2만5천원짜리 씨구러 양심으로 전락

한 양이 인출되지 않았다"며 "사업계획서의 미비와 잦은 총무의 교체로 조직적 한계를 보여 인출 받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1백만인 이상의 학생회비 인출의 경우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빌미로 학교교육이 학생회 탄압의 방편으로 이용 한것 같다"고 밝혔다.

한의 중흥한마당 열려

경주캠퍼스 한의대 학생회(회장=박호진·본2)는 지난 8월 29일 오후2시 체육관에서 '동국 한의중흥한마당'을 개최했다.

'동국한'의 발전과 도약의 발판마련을 위해 문화행사 및 투쟁보고등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학생·학부부·동문등 3백여

명이 참가, 개회사, 주제발표 및 토의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학생회장 박근은 "민족적·학문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선배·동문의 믿음에 감사한다"고 밝히며 "오늘 이자리를 빌어 동국한 발전과 새로운 투쟁의 계기를

대학인의 열정, 꿈, 지성 ... 영풍문고에 있습니다!

초대형 서점, 대형 분구점, 대형 음반점, 컴퓨터광장, 문화행사장, 휴식공간까지

- 모든 책이 다 있는 서점
- 신학기 대학교재 및 원서교재를 완벽하게 갖춘 서점
- 무슨 책이든 즉시 찾을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서점
- 국내 최대의 종합문구점, 초현대식 음반점이 함께 있는 복합서점
- 아늑하고 우아한 분위기, 효율적인 공간구성의 쾌적한 서점
- 편리한 교통,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만족을 주는 매력적인 서점

도시간내 399-5656, 399-5678
예매권 399-5616, 399-5617

지성의 향기로 가득한 복합문화공간
영풍문고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1Tel. 399-5600

